

'함께 하는 평화' 스크린으로 만나다

광주국제영화제 8월 29일 개막

10개 섹션...국내·외 80여편 상영
순수 북한제작영화 상영여부 주목
홍보대사에 이원종·김명진·권현상

올해 13들을 맞은 광주국제영화제가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 동안 메가박스 광주에서 열린다. 주제는 '함께하는 평화(Peace for All)'다.

광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영화제 일정 및 계획을 발표하고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올해는 총 80여편의 영화가 월드비전, 패밀리 시네마, 휴머니티비전, 단편영화상영, 특별상영 등 총 10개의 섹션으로 여여 상영된다. 특히 지난해 '평양에서의 약속'에 이어 올해도 북한영화상영을 기획,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는 순수 북한제작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어서 통일부의 허가여부도 관심사다.

조직위는 홍보대사를 주제에 걸맞게 'Peace Friends'로 정했다. 영화배우 이원종 씨가 영상홍보위원장을, 텔런트 김명진 씨가 영상홍보부위원장을 맡았으며, 텔런트 권현상 씨가 피스프렌즈로 함께 활동한다.



8월 개막하는 제13회 광주국제영화제 기자회견이 18일 오후 광주 동구 충정로 조직위 사무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활짝 웃고 있다. (왼쪽부터 텔런트 권현상, 김명진, 정동채 집행위원장, 영화배우 이원종, 영정호 상임이사)

이날 광주를 찾은 이원종 영상홍보위원장은 "13년전 제1회 광주국제영화제가 기억이 난다. 굉장히 성대하게 시작을 했었고 임권택 감독 회고전을 비롯해 배우들의 참여도 및 영화의 수준도 높았었다"며 "올해 광주국제영화제 홍보위원장으로 많은 배우들이 영화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올해 영화제는 2011년부터 인류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에 이바지한 작품을 선정해 시상

하는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도 3회째 시상된다. 또 한류 열풍에 이바지한 드라마와 배우에게 시상하는 '드라마 어워즈'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다.

시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영화제 서포터즈와 자원봉사자, 1일 체험형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SNS로 시민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이끈다는 계획이다.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국고지원 받는 영화제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인터뷰 제13회 광주국제영화제 정동채 집행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는 광주국제영화제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동채 광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13회 광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올해를 '국고 회복의 해'로 만들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그동안 광주국제영화제가 조직과 예산 등을 두고 파행에 휩싸이면서 힘들게 명맥만을 유지해 온 만큼 올해를 새로운 기회의 해로 만들

자는 의지다. 정 위원장은 "올해 영화제는 그 때보다 풍성한 내용과 다채로운 장르에서 내실 있는 영화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영화제의 국고 회복을 위해 국회의원을 비롯해 문화관광부와 협조하고 있는 단계이다. 내년에는 대한민국에서 국고가 지원되는 7개 영화제 가운데 하나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내년 한·중·일(요코하마) 3국간의 문화부장관들이 합의한 문화행사가 광주



에서 열리는 만큼 한·중·일 3국 도시간의 공동시나리오 작업과 공동감독 선임 등 공동 영화를 제작 해보고 싶은 의지도 내비쳤다. 정 집행위원장은 최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회장을 맡는데 이어 오는 7월 2일 발족하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도 회장을 맡는다. 앞으로 통합사무국을 꾸려 문화전당 콘텐츠를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은 물론 광주국제영화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열린 무대·열린 장터...참여하는 누구나 주인공

내달 2일까지 디자인비엔날레 주말콘서트&디자인마켓 참가자 모집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시민참여프로그램 중 하나인 '주말콘서트&디자인마켓' 참가자를 오는 7월 2일까지 모집한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앞 야외무대와 중정에서 펼쳐지는 '주말콘서트&디자인마켓'은 전문

공연인과 예술인,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장터이다. 공연은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행사 기간인 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59일간 매주 주말 1~2회에 걸쳐 열린다. 이와 병행해 디자인 아트상품 장터도 마련된다.

올해 주말콘서트 공연 분야는 ▲국악·클래식·포크·재즈·현대음악 ▲퍼포먼스·연극(인형극·마당극·마임)·마술 ▲전통무용·현대무용·스포츠댄스 ▲기타 해외 민속공연 등에 걸쳐 이루어진다. 디자인마켓 분야는 목공예와 금속공예 등의 디자인 상품에 한해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면 지원 신청서와 공연 및 디자인마켓 계획서 등의 관련 서류를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정책연구실 시민참여추진팀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608-4251-4.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광주문화재단 '유서석록(遊瑞石錄)' 재연행사 참관기

무등산에서 노닐다



임준성
조선대한문학과교수

나갈 무렵 비천무 춤사위에 좌중은 한층 흥취가 더해간다.

첫날 저녁 무대를 원조사 회암루로 옮겨 김대현 교수(전남대)와 김순영 연구원(전남대)을 중심으로 '야한대담(夜閑對談)'이 마련됐다. 탐방단과 일반 시민들로 가득 채워진 회암루에서 무등산의 가치와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은 시종일관 진지했으며, 이는 전통문화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튿날 새벽 일출을 보기 위해 천왕봉에 올랐으나 곳은 비안개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곧 장마가 시작되는 즈음이라 당시의 날짜를 기준으로 맞추지 못한 것은 욕에 티라 하겠다. 곳은 날씨에도 개의치 않고 입석대로 무대를 옮겨 자연의 신비로움과 조물주의 솜씨에 감탄한다.

임훈 목사는 무등산을 오르지 않았으면 후회막급할 뻔했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호연지기를 제대로 배우고 간다고 하면서 일행에게 거듭 감사한다. 이에 고경명은 '유서석록'의 마지막 부분을 회상조로 읽으면서 이들 간의 재연행사를 마무리한다.

'유서석록' 재연은 단순한 재연이 아니다. 그 시대 문인들이 산에서 노닐었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반성하게 하는 것이다.

고도로 발달한 문명 앞에 자연은 그저 개발과 정복의 대상으로 변해버린지 오래이다. 이쯤에서 자연과의 교감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대인들의 정신적 고뇌와 갈등을 치유하는데 '유서석록'을 비롯한 전통문화콘텐츠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이유이다.

필자는 이들 간에 걸친 재연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가치를 '은고지신'이라는 성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옛것을 익혀 새로움을 안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섭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옛것을 진부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전통과는 단절될 수밖에 없다. 한낱 옛것을 고답적 취미로만 생각하는 것은 유연한 사고가 아니다.

옛것 중 오늘날 가치있는 부분을 계승발전시켜야 마땅하다. 따라서 16세기 당시 고경명의 '유서석록'이 있었다면, 21세기에는 누군가의 '유서석록'도 나올 때 진정한 은고지신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도 그 책무를 광주문화재단에서 맡아주고 있으니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다.

지난 주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들 간에 걸쳐 광주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유서석록(遊瑞石錄)' 재연행사가 있었다. '유서석록'은 16세기 호남의 대표적 문인 중 한 분인 제봉 고경명(峯峯 高敬命, 1533-1592)이 41세 되던 해 1574년 당시 광주목사였던 갈천 임훈(葛川 林薰, 1500-1584) 등 광주의 문인들과 함께 음력 4월 20일 증심사로부터 시작해서 24일 성산의 서하당과 식영정에 이르기까지 4박 5일 간 무등산의 산수를 즐긴 여정을 기록한 장편 기행문이다. 옛문인들의 산에서 노닐었던 이야기를 보듯 '유산기(遊山記)'라 하는데, 현재까지 무등산 관련 유산기록문헌은 약 20여 편 남아 전한다. 이중 '유서석록'은 무등산의 대표적인 유산기로 무등산의 자연생태와 사찰 등 당시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오늘날에도 귀중한 자료이다.

광주문화재단은 호남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콘텐츠를 조사 발굴하고 이를 오늘날에 맞춰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책무를 가진 기관이다. 작년에 있었던 선비들의 여름나기 재연행사인 '성산계류탁월도'와 '소쇄원48영'의 경우, 목판과 문헌기록이라는 광면적 제약에서 벗어나 옛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풍류를 즐기고 학문을 논했었기에 대한 궁금증을 입체적으로 재조명하여 시도한 바가 있다.

이제 세간의 이목을 끌어 전통문화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올해에도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콘텐츠 발굴사업은 지금으로부터 440년 전 당시 '유서석록'으로 이어진다.

재연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광주의 마당극단인 '신명'의 전문배우들이 당시의 복장으로 분장하면서 시작된다.

중심사 취백루 계곡 아래에서 고경명과 지인들이 먼저 와서 임훈 목사를 기다리는 동안 탁족을 즐기고 있다. 이윽고 가마를 타고 임훈 목사가 당도하자 서로 인사를 나누며 그간의 안부를 묻는다. 당시 임훈 목사는 75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재직하는 동안 무등산을 꼭 오르고 싶었다면서 모처럼 자리를 마련해준 고경명에게 감사를 표한다. 고경명은 어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리 먼저 와서 기다리는 등 상행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다시 무대는 장불제로 옮겨진다. 이와 별도로 탐방대 30여 명이 구성되어 '유서석록'의 증심사에서 장불제까지 여정을 그대로 밟아 체험하는 행사를 결단한 점은 단순한 재연이 아닌 시민과 소통을 위한 좋은 기획안이 아닐 수 없다. 일행들이 장불제 너럭바위에 둘러앉아 점심을 곁들이면서 때마침 울리는 풍악소리에 계산풍류의 진면목이 여실히 드러난다.

세상과 학문 등을 논하면서 질탕한 놀이가 끝

한국의 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장비,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함께하는
고객중심의 건강검진기관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 검진시간 08:00~17:00 [토요일 정상근무 12:00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전화 예약 062) 363-4040
인터넷 예약 gwangju.kahp.or.kr 인터넷 예약 gwangju.kahp.or.kr
심 의 번 호 제 110713-중-22985호 심 의 번 호 제 110713-중-22985호